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당시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 참된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과 유산을 통해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당시 로마 문화의 성년식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설명합니다.

당시에는 성년이 되기 전 자녀들이 후견인 아래 놓여 있었던 풍습이 있습니다. 성년이 되지 않은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지만 철저하게 초등교사의 통제 아래서 자랍니다. 잘못하면, 주인의 아들을 때릴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1,2절) 그러나 일정 나이가 된 뒤에도 여전히 후견인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되면 종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학문을 알게 되고, 스스로 결정할 성숙함이 주어지면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라

바울은 3절에서 복음이 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삶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율법과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 하던,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초등학문이란 수준이 낮은 단계, 기초적인 학문을 의미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때가 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너희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알려 줍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 삼기 위해서입니다. (5,6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 ● 복음 안에서 종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살라

복음을 모르는 신앙은 종노릇 하는 신앙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노릇 하였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많이 제한되고, 종처럼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 훨씬 행복하고 자유로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노릇 하게 됩니다. (죄, 욕망, 세상, 죄책감, 종교 등의 노예가 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넘치고, 그 은혜 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고, 자녀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야 합니다.

좋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부자여도 주인의 것이 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입니다. 좋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자유합니다. 좋은 주인을 두려워하며 따르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깁니다. 주인이 자신을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인정받을까를 좋은 고민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좋은 주인을 흉내 내려고 할 수 있지만,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10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타까운 이유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들이 다시 은혜의 복음을 떠나 율법주의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언제든지 자녀가 아닌 종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퇴보입니다. 기도 시간이 줄고, 말씀 읽는 것이 줄고, 예배 생활이 무너질 때 단지 행위로만 나아오지 마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 암송

## 이번 주 외울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 통독

## 이번 주 성경 통독

4/4(월)	4/5(화)	4/6(수)	4/7(목)	4/8(금)	4/9(토)	4/10(주일)
삼상18-19	삼상20-22	삼상23-25	삼상26-28	삼상29-31	삼하1-2	삼하3-5

# QT

## 이번 주 QT 말씀

4/4(월)	4/5(화)	4/6(수)	4/7(목)	4/8(금)	4/9(토)	4/10(주일)
스 4:1-10	스 4:11-24	스 5:1-17	스 6:1-12	스 6:13-22	스 7:1-10	스 7:11-28

# 나눔

##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나의 신앙생활이 종의 모습인지, 아들의 모습인지 나누어 주세요.
3.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자녀의 신앙으로 살게 하는지 나누어 주세요.